

# 중·장년 1인가구 18% '고독사 위험군'

### 광주 동구 1만여명 전수조사...9.5% "지난 6개월 죽음 생각한 적 있어" 복지급여 수급자 8.2% "일주일간 한번도 외출 안해"...예방·관리 필요

광주시 동구에서 거주하는 중·장년 1인가구 여섯 가구 중 한 가구는 '고독사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동구는 28일 동구에서 거주 중인 중장년 이상(40세 이상) 1인가구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동구는 사업비 2400만원을 들여 지난 2~3월 복지급여 수급 1인가구를 대상으로, 5~8월 일반 1인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대면조사 및 설문지를 이용해 실제 혼자 거주하고 있는지, 일상·사회적으로 고립돼 있지는 않은지, 경제·신체·정신·중독 등 취약성은 없는지 조사한 결과다. 전체 40세 이상 1인가구 1만 6822명 중 시설입소자, 장기요양등급 이용자 등을 제외한 1만 6085명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 중 1만 651명이 조사에 응답했다.

조사 결과 전체의 4.9% 해당하는 522명이 고독사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중위험군은 1427명(13.4%)으로, 전체 18.3%가 고독사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독사 위험군은 복지급여 수급자 사이에서 더 많았다. 수급자 총 3906명 중 고위험군은 487명(12%), 중위험군은 1122명(29%)으로 41.2%가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수급자 중 321명(8.2%)은 일주일동안 한 번도 외출하지 않았으며, 99명(2.5%)은 하루 한 끼의 식사도 제대로 챙겨 먹지 않고 있었다.

질병을 앓고 있는 이는 1888명(48%)이었으며, 각각 당뇨·고혈압 1108명(58.7%), 우울증·조현병 82명(4.3%), 뇌질환 78명(4.1%), 정신질환 77명(4.1%), 거동 불편 62명(3.3%), 암 56명(3.0%) 등을 앓고 있었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생활이 어렵다는 답변도 1091명(27.9%)에 달했으며, 600명(15.4%)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줄 사람이거나 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1인가구 674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고위험군 35명(0.5%), 중위험군 305명(4.5%) 등으로 상대적으로 위험군 비중이 적었다.

다만 응답자 중 "지난 6개월 동안 죽음을 생각해 보거나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적 있다"고 답변한 이는 655명(9.5%)에 달했다.

일주일동안 한 번도 외출하지 않거나(585명·8.5%) 다른 사람과 소통을 1회 이상 하지 않은(830명·12.0%) 경우는 20.5%였으며,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도 1888명(27.4%)이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913명(13.2%), 지난 2주간 심한 외로움을 느낀 적 있다는 응답은 1022명(14.8%) 등이었다.

동구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독사 위험군에게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사회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1인가구 지원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고위험군의 경우 전수조사와 동시에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와 연계했다. 동구의 모바일안심돌봄서비스 등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 연계 실적은 올해 7월 기준 4736건으로, 지난해 4333건 실적을 웃돌고 있다.

동구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일반인 무연고자에게도 공영장례를 지원하고 동구형 유품정리사업(나비활동가)을 추진해 사후 유품정리와 특수정소를 지원하는 등 사업도 시행 중이다. 더불어 동구는 종교단체, 공인중개사 등과 연계해 1인가구의 안부를 묻고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동구는 1인 가구 비율이 49.1%로, 광주시 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며 "민관 협력으로 1인가구가 소외되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돕는 한편 복지사각지대 없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조식대병원 노조 총파업 전야제**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전국보건의료 산업노동조합 조식대병원지부 조합원들이 광주시 동구 조식대병원 1층 로비에서 '2024년 산별현장교섭 승리를 위한 총파업 전야제'를 열고 있다. 이날 노조와 조식대병원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밤까지 조정을 진행하며 줄다리기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최한배 기자 choi@kwangju.co.kr

# 의장 선거 과정 뇌물 혐의 나주시의원 10명 입건 수사

나주시 기초의원들이 후반기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 1대는 뇌물공여·뇌물수수 혐의로 나주시의원 A의장 등 기초의원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지수사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 A씨를 포함해 입건된 대부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에 따라 나주시의원 총 16명(더불어민주당 13명, 진보당 1명, 무소속 2명) 중 10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A의장은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면서 "이와 관련, 경찰로부터 단 한차례도 연락 받은 적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전남 담페이크 성범죄 3건 경찰, 피해 사실 확인 수사

전남 경찰이 청소년 대상 담페이크 성범죄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담페이크 관련 신고 4건을 접수해 3건에 대해서는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피해 신고자들은 목포, 여수, 광양, 영암지역 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이다.

경찰은 목포, 여수, 광양의 피해신고의 경우 담페이크로 합성된 음란물이 확인돼 가해자를 추적 중이다. 영암의 피해신고의 경우 "내 사진이 합성된 담페이크 음란물을 봤다"는 사례여서 피해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담페이크를 알고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담페이크는 인공지능(AI) 심층 학습을 뜻하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가 합쳐진 단어. AI로 만든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를 뜻한다. 실제 영상이나 사진들을 서로 짜깁기해 아예 새로운 사진·영상을 창작한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담페이크 음란물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대응에 나선다.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담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접수시 영상물 삭제·차단 및 피해자 안정·보호를 위한 심리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신변보호요청도 지원한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제작은 물론 유통까지 추적·검거해 엄정 대응하는 등 담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금호타이어 감전사, 불법하도급 혐의 적용 검토

'지게차 사고' 광주공장 등 입건

경찰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감전 사망사고에 대해 불법 하도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감전 사고와 관련 관계자에 대해 전기공사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60대 노동자 A 씨 감전 사망사고가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금호타이어는 가스터빈 발전기 공사를 외주업체에 맡겼고 해당 업체는 또 다른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전기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를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A씨는 다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가스터빈 작업이 전기작업 중 주요 작업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전기공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지난달 2일 광주공장(광산구 소촌동) 지게차에서 떨어진 원자재를 맞아 숨진 40대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경찰은 당초 입건된 지게차 운전자에 추가로 광주공장장과 안전팀장, 파트장, 팀장, 반장 등을 입건해 총 6명을 조사 중이다.

전남경찰청도 지난 4월 곡성공장(곡성군 입면)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 건에 대해 지난주 곡성공장장과 현장 안전관리자, 설비담당 직원 총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 금호타이어 노조 9월 3일 무기한 총파업 예고

광주·곡성·평택공장서 결의대회

금호타이어 노조가 28일부터 이틀간 경고 파업을 진행하고 사측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다음달 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2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는 이날 오전 광주·곡성·평택 공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9월 3일을 시작으로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29일까지는 하루 4시간 경고파업을 통해 사측과 대화의 창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9월 3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격 총파업에 나선다는 것이다.

노조는 당장 이날부터 오전·오후·주간·야간 근무조를 마다 각 4시간씩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지난 22일 14차 분교섭이 결렬되자 23일 쟁의대책위를 개최했고 이후 지난 27일 추가로 15차 분교섭을 열었지만 노사 합의가 결렬됐다"고 총파업의 이유를 설명했다.

노조는 사측에 15만 9800원의 기본급 인상(7%), 성과급 배분, 고용안정과 미래비전 제시 등의 요구안을 주장했다. 사측은 기본급 2%, 일시금 400만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3일 총파업이 진행되면 2018년 총파업 이후 6년만이다. 이번 총파업 참여 인원은 금속노조 3600여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총파업이 시작되더라도 안전환경 팀 등 필수 인력 100여명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정)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